



Hot Issue

LED EXPO 2009

LED EXPO 김상배 대리
led@exponu.com

LED에 대한 신기술 및 시장 동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국제 LED 엑스포 2009'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새롭게 출범한 삼성LED를 비롯해 금호전기, 태원전기산업, 우리조명, 넥손, 다산에이디, 루미마이크로, 와이즈파워, 한솔, 빛샘전자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228개 업체가 474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국제 LED EXPO & FPD KOREA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5월 20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일산 KINTEX에 집중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LED 전문 전시회인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9 전시회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LEDEXPO.COM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LED 전문 전시회가 지난 5월 20~23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2006년~2009년 (4년 연속)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 국내무역 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유망 전시회로 선정되고,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본 전시회는 LED 산업의 “新 성장동력산업 지정”과 “공공기관 LED 조명 시범개체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약 2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LED 조명에서부터 칩, 패키지, 모듈, Display, OLED, 부품,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던 본 전시회에는 삼성LED, 금호전기, 태원전기산업, 우리조명, 한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넥슨, 킹브라이트, EFD, 와이즈파워, 한삼시스템, 프로텍 등 기라성같은 업체들이 신제품을 대거 출품하여 명실공히 세계 수준의 LED 전문 전시회로 거듭났다. 특히, 삼성 LED는 공식 법인 출범 후, 첫 번째로 참가하는 전시회로 국내, 외 바이어와 참관객들에게 공식적인 삼성 LED 법인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전시회 개최기간중에 함께 진행된 세미나와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 또한, 예년과 비교하여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LED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다

LED EXPO의 전체 참관객 수는 약 26,060여명으로 작년 약 16,000여명과 비교하여 약 65%이상 상승하였고, 해외 바이어 수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산업, 특히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LED 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년 LED EXPO 전시회에서 한가지 큰 특징은 일본인 참관객과 바이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LED EXPO 사무국은 일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일본 LED 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구매능력을 가진 일본 바이어와 참관객들을 국내로 모이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시장내에는 LED 디자인 갤러리 행사장이 신설

운영되었다. 이는 LED가 단순히 전력 효율이 높고, 빛이 밝다는 것 뿐만 아니라 LED가 생활 모든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예술적 혹은 시각적으로도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참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머리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울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회가 되었다.

개막식

전시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막식에는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안양호 경기도 부지사, 허영호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EXPOonU 김형식 회장, Atsushi Okuno 일본 LED 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21명이 참가하여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기술개발과 우수제품 개발에 힘쓴 기업들을 위해 정부 포상(지식경제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KOTRA 사장상)을 실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상 - 태원전기산업(주), 경기도지사상 - 우리조명(주), (주)지앤에이치, KOTRA 사장상 - 와이즈파워(주), (주)싸이력스가 수상하였다.



국제 친환경 조명 및 디스플레이 학술대회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9의 메인행사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는 LED 산업의 “新 성장동력산업 지정”과 “공공기관 LED 조명 시범개체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LED 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업 전반에 걸친 최고 권위의 연사들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Blue LED의 창시자 나카무라 슈지 박사”를 포함하여 “미국광산업협회의 대표, Michael Lebbey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극찬을 받았다. 또한, 큰 관심을 받았던 “세계 최고의 LED 조명 디자이너, 모토코 이시이 교수”의 강연은 그 동안 R&D 분야에 연사와 강연 내용이 집중되던 형식을 탈피하여 디자이너들에게도 유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올해에는 전년도와 달리 2시간씩 진행되는 Short Course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연사들의



더욱 더 깊이 있는 내용의 강연과 분석적인 자료 전달이 가능했으며,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인 기술세미나를 통해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삼성LED의 법인 출범 후, 첫 번째 발걸음이 된 이번 전시회에서 얼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LED TV를 전시하여 관계자들과 참관객들의 탄성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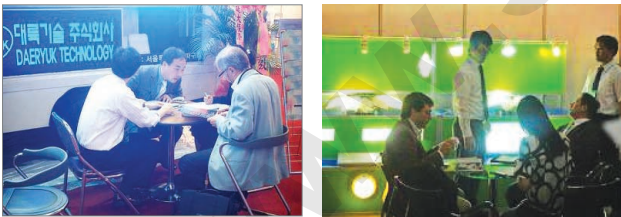
■ 영원테크

영원테크는 광섬유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사인시스템과 광섬유 조형물을 선보였다. 특히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광섬유 소나무는 전시기간 내내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광섬유를 활용한 벤치, 발조명, 별자리벽력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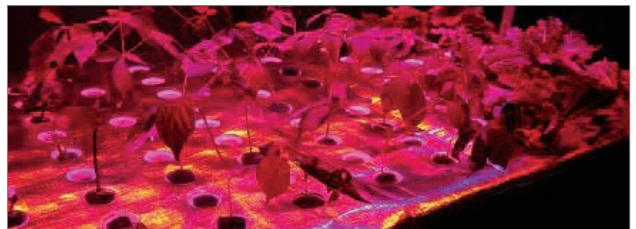
O² = One and One 시스템, 찾아가는 바이어

LED EXPO 2009의 수출상담회는 특색있게 진행되었다. 기존에 실시되던,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수출상담회를 바이어가 직접 업체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해당업체 담당자와 바이어 간에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연락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바이어들이 상담이 없는 시간에는 원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여 부득이하게 상담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참가업체들 또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O² = One and One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한건의 상담이 한건의 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중하고 엄격한 바이어 선별 과정을 거쳤다.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LED EXPO를 통해 LED를 활용한 식물공장 시스템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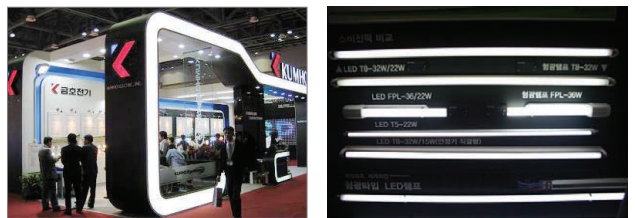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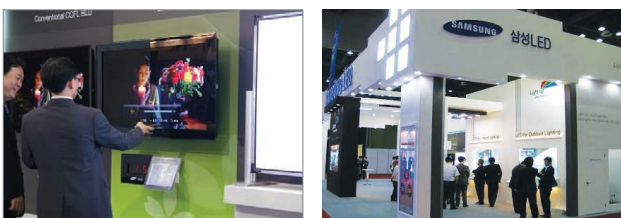


전시회 참여기업 소개

■ 삼성LED(주)

■ 금호전기(주)

금호전기는 형광등, 백열등, 할로젠, 삼파장램프 등 기존의 조명제품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사의 LED브랜드 '에코너지'를 전시했다. 특히 기존 등기구와의 비교시스템을 설치해 LED 조명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눈길을 끌었다.



■ 태원전기산업(주)

태원전기산업은 LED가 가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고전적 요소인 백자의 모습을 접목한 LED조명 'SATURN K'를 출품했다. 독일의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레드 닷 어워드' 우수상에 빛나는 이 제품은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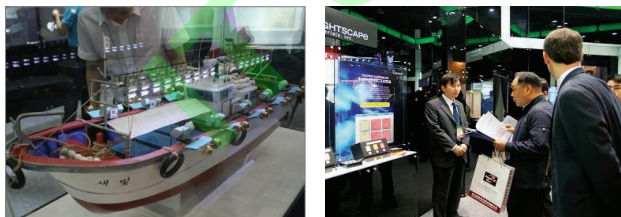
■ 우리조명(주)

LED패키지부터 LED조명, LED백라이트유닛까지 생산라인 전체를 수직계열화 시키며 본격적인 LED조명 산업에 뛰어든 우리조명은 터치센서를 적용해 LED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감성조명 시스템을 선보였다.



■ (주)와이즈파워

미국의 Light Scape사를 인수한 (주)와이즈파워는 LED 집어등을 설치한 모형배를 전시했다. 방진, 방수, 부식방지 기능을 지닌 이 회사 LED 집어등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집어등 유류비를 80% 이상 줄이고, 어획량도 늘릴 수 있다.



■ (주)백손

백손은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LED면발광 사인과 UL인증을 받은 채널사인용 LED모듈 '엘비'를 선보였다. '엘비'는 메탈소재 케이스를 적용해 방열특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이동형 발광 신호판 '뮤디스'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주)다산에이디

다산에이디는 CE인증을 획득한 LED모듈 '다빈치'와 다양한 LED 사인시스템을 전시했다. 풀컬러 LED모듈과 이를 활용한 경관조명은 참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Sanyu, Rec, EFD, Power Integration 등 국내, 외의 기술력을 지닌 선도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전시회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

LED EXPO & OLED EXPO 2010

- 기간 : 2010. 6. 22(화) ~ 25(금)
- 장소 : 일산 KINTEX 3, 4홀
- 전시규모 : 350개 업체 700부스
- 전시품목 : Chip LED, LED Lamp, LD, Back Lights, Traffic Signals, LED Signal, Score Board, Displays, LED Application Category, Automotive, Architectural, Room Lighting, LED Process Technology, Green Lighting, OLED 등
- 주최 : LEDEXPO.COM(EXPOonU),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사)한국LED보급협회(KLED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부대행사 : 우수 기술 및 제품 개발업체 정부 포상, Int'l LED & OLED Executive Forum and Seminar 2010, 업체 제품설명회, 수출상담회

[참고 자료]

1. 2009 LED EXPO 현장, SP투데이
2. '빛의 향연' 사진으로 보는 'LED엑스포', 아이뉴스24